



땀으로 인내로 고건축 계승 40여년

산문박의 禪

인간문화재 전홍수 대목장

'목수치고 재집 가진 사람 없다.'

8월22일 인간문화재 대목장(大木匠) 74호로 지정된 국내 고건축의 거목(巨木) 전홍수씨에게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는 오는 2002년 완공되는 국내 최초의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사재 130여억원을 들여 손수 짓고 있는 목수이기 때문이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덕승산 수덕사를 우로 비껴 차로 5분 정도 내달리면 우람한 자태를 뽐내는 고건축물들이 버티고 서 있다.

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강릉 객사문을 그대로 본떠 만든 정문을 지나 전시관에 들어서면 실물 크기의 10~20% 모형으로 재현된 국보 제1호 송례문,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국보와 보물 200여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들 전시물은 건축재료를 빠짐없이 축조해 짜맞춘 것으로 기와, 흙벽, 단청 없이 목조 열개로만 돼 있어 건축물을 속속들이 볼 수 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재료를 모두 새기고 파서 짜맞추는 우리 전통 건축술이고 보면 이렇게 나무의 면살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우리 전통 건축물의 참 맛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재 130억 들여 고건축박물관 98년 1차 개관 2002년 완공

동이 개관돼 있고 양반 사대부집, 초가 삼간 등을 더 지어 2002년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의 미를 응축해 놓은 한국고건축박물관. 40여년간 고건축 하나만 부여잡고 열정과 혼을 불어넣으며 장인의 삶을 살아 온 전홍수 관장(62)이 고향에 세워 놓은 자기 인생의 회향물(回嚮物)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아름다움이 전수되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마는 것을 한심 가슴아프게 생각해 오던 중 고건축 분야란이라도 그 기능과 기법을 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의 목수 일로 '인간문화재'라는 입신(入神)의 경지에 오른 전 관장이 고건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약 18세. 당시 대목으로 널리 알려진 부친 전병석씨에게 일머리를 배웠다.

3남 6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전 관장은 보릿고개의 가난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다섯 살 아래인 동생(前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설성스님)을 가난으로 속세를 떠나보낸 고통과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상처가 불타는 사춘기를 남기기도 했다.

21세 되던 해 전 관장은 방황을 겪고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고건축 일에 뛰어들었다. 부친이 대목이었던 인연으로 대목장 故 김중희씨를 만나 고건축의 미에 흠뻑 빠져 들게 된다.

전 관장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사현장에서 어찌너머로 일을 배우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배우는 속도가 빠른 그를 견제하고 못아내려는 선배들의 주먹질도 순하게 이겨내야 했지만, 오로지 불심과 전통문화에 이어가겠다는 집념으로 고행길을 이겨냈다.



○전 관장이 사재 130여억원 들여 건립중인 한국고건축박물관 전경.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많이 들었고 돈 되는 일에 대한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재가 쌓여 법당의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심취한 나를 발견했을 때는 무척이나 환희심에 젖었습니다."

전 관장은 이 때 좋은 나무를 선택하는 방법 등 고건축의 기초부터 하나하나를 뜯어내 배울 수 있었다. '15년이 지나야 자를 잡는다'(독자적인 설계와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는 고건축 목공기술을 그는 배운지 10년만인 31세에 자립의 꿈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선조들의 종적 높은 기(技)와 예(藝)를 그대로 재현해 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중압감이 자립에 깊어 들어선 그의 마음을 혼돈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중압감은 마치 화두에 몰두하던 수좌가 은산벽(銀山巖)에 가로막힌 것처럼 한동안 나무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움 정도로 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런 그가 마음의 공정을 찾고 망치와 끌에 혼을 담을 수 있었던 데는 수덕사 대웅

전이 큰 힘이 됐다. 백척간두진일보(百斥竿頭進一步) 하는 '죽어야 산다'는 심정으로 발심을 새롭게 하자,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사찰 고건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열어서 볼 때 흔히 나간 사람처럼 일념에 빠져 전종기법을 연구하다 보니, 거기서 화두(話頭)가 깨쳐져 사자후(獅子吼)가 나온 셈이다.

전 관장이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고건축 공사를 시행한 곳은 문화재는 물론 전국 주요 사찰 건물 등 수백건에 이른다.

난공사로 꼽히는 관악산 연주암과 도봉산 망월사를 비롯해 오대산 월정사 대웅전, 속리산 법주사 대웅전, 안동 용담사 대웅전 등 그의 손을 거친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한다. 그가 신축·보수한 전통 건물을 면적으로 따지면 5만 여평은 족히 넘는다.

특히 전 관장이 신축한 서울·여주·포천 등 10여 개에 이르는 대순진리회관과 대전대학, 대전 엑스포 종각 건축은 그의 대표작으로 건축미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 관장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건축물은 수덕사 대웅전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수덕사 황화루다. 20여년 전 신축부터 최근 보전 수리작업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여할 만큼 애착을 쏟아부었다. 문화재의 원형보전과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하는데 주력해 온 그의 집념의 단편을 보여 준다.

이제 그는 한국 고건축계에서 4명이 불과한 인간문화재 대목장이 되었다. 일본 당시 현대 받았던 직업이 이제 최고의 문화재 기능인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지난 90년부터 한국문화재보존수리기능인협회 회장을 10여년간 맡아 온 그는 최근 신홍수씨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상임고문을 맡아 일반인의 문화재 애호정신을 고취시키고 보전수리기능의 전승·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그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한 공로는 물론 노안공경과 효 실천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MBC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한 '99 좋은 한국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예산군 '효 장학회'에 2000만원의 성금을 쾌척하고, 남 모르게 양로원 등에 쌀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무무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해 왔다.

한 우물을 파는 욕심과 배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돼 온 이 시대의 장인 전 관장의 마지막 불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다.

"고건축박물관에 전통건축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장과 일반인을 위한 실습장을 만들어 청소년과 해외교포들에게 우리 문화의 얼과 문화를 체험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이 싹트기 때문이죠." (041)337-5877

글=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손 거친 목조건물 연주암·망월사등 총면적 5만여평

양로원 수시 위문 장학금도 선뜻 보시행 실천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좋은 잠자리가 잠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 ▶ 평평 뒤편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 전자와 자체 제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고요? 펀딩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고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동맥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침대의 이름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02)424-9427/2203-7821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초장파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복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돌침대는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